시민 10명 중 2명 이웃과 담 쌓고 산다

광주 시민 의식 조사

22.4%가 "친한 이웃 없다"
나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느껴
일자리 만족도 30·40대 높아

광주시민 10명 중 2명이 이웃과 아예 단절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시민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광주시민 665명을 대상으로 '광주시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설문에 따르면 '친하게 지내는 이웃'을 묻는 항목에서 전체의 22.4%(149명)가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없다'고 답했고, '1명'이라고 답한 시민도 9%(60명)에 달해 이웃과의 단절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반면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2~4명'이라고 답한 시민은 39%(259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9명'(19.2%), '10명 이상'(11.3%) 순으로 조사됐다. '마을 공동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84%가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광주시민들은 고학력일수록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에 대한 학력별 만족도는 대학원 출신들이 5.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4.69점), 고등학교 졸업(4.34점)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출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3.66점에 불과했다.

반면 초·중학교 학력자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66점으로 고등학교 출신(4.57점)과 대학교 출신(4.41점), 대학원 출신(4.51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30대(4.75점)와 40대(4.74점)에서 높게 나타났고, 20대(4.58점)와 60대(4.47점)에서 낮았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4.66점)와 서구(4.63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삶의 질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반면 동구(4.48점)와 남구(4.55점) 주민들의 만족도는 낮았다. 서구는 4.63점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민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행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광주시민의 행복수준을 나타내는 행복점수 평균은 6.39점"이라며 "행복 수준은 설문 표본 내 점수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만점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행복점수가 7.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6.61점, 40대 6.31점, 30대 6.12점, 20대 5.78점 순으로 조사돼 고연령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의 행복점수(6.27점)가 여성(6.18점)보다 높았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6.36점)와 북구(6.35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반면 동구(5.88점)와 남구(5.89점) 주민들의 행복점수는 낮았다.

학력별로는 초·중학교만 나온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7.89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출신의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점수는 6점대 초반으로 비슷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강봉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집중조사

국과수 칠산대교 상판 붕괴 현장 정밀감식

영광경찰, 근로자 등 소환 조사

다리 상판이 시소처럼 기울어진 영광 칠산대교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정밀감식이 11일 오후 진행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영광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식반과 합동으로 칠산대교 상판 붕괴사고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벌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현장조사에는 경찰과 국과수 요원, 공사관계자 등 25명과 고가사다리차 1대가 투입됐다.

현장조사는 교각과 상판을 연결·교정하는 끊어진 강봉(쇠기둥)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가사다리차에 탑승한 국과수 감식반은 지난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강봉이 끊어지면서 상판이 기울었다'는 발표를 토대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가 설계도에 명시된 높이 9m, 직경 4㎝ 규격의 강봉 32개를 설계서대로 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특히 칠산대교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강봉이 상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끊어진 것인지, FCM(Free Cantiever Method) 공법으로 작업 중 좌우 균형이 무너지면서 강봉이 부러진 것인지 정밀 감식했다.

국과수 감식반은 교각과 상판 연결 부위 조사에 이어 상판 난간 등에 대해서도 사진촬영 등 현장 채증작업을 벌였다.

영광경찰은 시공업체 관계자와 하청·감리업체 관계자, 부상한 외국인근로자 등 20명을 소환해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확보한 작업일지·시공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칠산대교는 국도 77호선인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와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를 잇는 해상교량이다. 길이 1820m, 폭 11.5m 편도 2차로이며, 2012년 9월 착공해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해 대우건설(지분 54%), 대보건설(15%), 남양건설(13%) 등이 공사를 맡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광=박형진 기자 qkrhj@

국가보조금 억대 횡령
호텔 스위트룸 투숙 등
화순전남대병원 간부 구속

국가 보조금으로 아내와 함께 특급호텔 스위트룸에서 자고, 고급 한정식집에서 외식을 한 국립병원 간부가 구속됐다. 해당 병원은 자체 감사를 하고서도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뒷말이 무성하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화순전남대병원 전 국제메디컬센터장 장모(58)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2011~2013년 41차례에 걸쳐 국가 보조금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물품구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해 주 거래업체 6곳에 보조금을 집행한 뒤 이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보조금 카드로 171차례 8000만원 상당을 업무와 관련없는 화장품·침구류를 구입하고, 호텔숙박비·택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2011~2014년 이 병원 국제메디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국비 지원 '해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을 총괄했다. 이 사업은 지역 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술 확충 등을 위해 2010~2015년 총 38억5000만원을 이 병원에 지원했다.

보조금을 지원한 복지부와 지자체, 병원은 감사를 실시했지만 이같은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횡령의혹이 불거지자 병원측은 지난해 장씨를 해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

광주 상무금요시장·양동시장 노점상인 100여명은 11일 서구청 3층 청장실 앞 복도에서 상무금요시장 노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상무금요시장 노점상 서구청장실 점거농성

광주 상무금요시장 폐쇄를 놓고 서구청과 노점상인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구청이 노점상을 못하도록 인도에 대형화분을 설치하자 상인들이 이를 뒤엎고, 과태료를 부과하자 청장실로 몰려와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측 모두 대화보다는 행동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11일 광주 서구청과 노점상인들에 따르면 상무시장과 양동시장 노점상인 100여명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서구청 3층 청장실 앞 복도에서 점거농성 중이다.

이들은 서구청이 발송한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청장실 복도 점거농성에 돌입, 임우진 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구청은 지난 1일 상무시장에서 노점상행위를 한 상인들에게 점포규모에 따라 50만~18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를 받은 상인들은 5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노점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지금까지 자진 정비를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영세상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폭거"라며 임우진 청장 면담과 의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병원 농협회장 불구속 기소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아 온 김병원(63) 농협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의 선거 부정에 연루된 13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함께 출마해 사건에 깊이 개입한 합천가야농협 최덕규(66) 후보 등 3명이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최 후보 측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사전에 약속한 혐의다.

/연합뉴스

선암사 인근 식당서 아무 말 없이 울산·양산 고로쇠 팔았다면…

원산지표시 위반 '무죄'…사기죄는 '유죄'

고로쇠물로 유명한 선암사 인근 식당과 민박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산·양산 등에서 구입한 고로쇠물을 팔았다면 원산지표시법 위반일까, 아닐까?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사기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 부분은 인정돼 이들은 벌금 150만~25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고로쇠 수액으로 유명한 선암사 인근에서 식당과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선암사 주변이 아닌 거제·양산·울산 등에서 채취한 고로쇠물을 구입해 손님들에게 아무런 말없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로쇠 수액이 선암사 일대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라 양산·울산 등에서 채취한 것을 알았다면 손님들이 이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암사 고로쇠물을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에 대한 신의에 비춰 선암사 고로쇠물이 아님을 알릴 의무가 있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산지표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를 한 적은 없는 만큼 이들의 행위가 위장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부과처분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승려 행세 하며 불교용품점서 금품 훔쳐 도주

쌍나팔

○…수행 중인 승려 행세를 하며 입에 발린 말로 직원의 환심을 산 뒤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절창행.

○…1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모(53)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께 광주시 한 불교용품점에서 여직원 이모씨의 현금 75만원 등 9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승복은 입지 않았지만 삭발한 외모와 그럴듯한 말투로 '오는 11월 귀인이 나타나겠다'라는 말 등을 하면서 이씨의 환심을 샀다"며 "전씨의 말에 속은 이씨가 간식을 사러간 사이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설명.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